

美 綜合貿易法 드디어 發效 韓國 對美 흑자 安줄일 旣 報復 조치 可能

레이건 美國大統領은 지난 8월 23일(현지시간) 상오 로스앤젤레스 롱비치에서 綜合貿易法(HR4848) 사인 기념행사를 갖고 이法案을 정식으로 인준했다. 이로써 3년여동안 끌어온 말쟁 많은 이 保護主義 색채의 法案은 9월 1일부터 發效되게 됐다.

사인기념식전에는 이 法案을 뒷받침해온 의원들·공무원 그리고 부두 노동자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레이건大統領은 이法案이 아직도 保護主義성향을 띤 條項들이 있어 걱정은 되나 그래도 좋은 法案이라고 밝히고 이 法이 國際貿易環境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法案이 定式發效됨에 따라 특히 우리나라는 앞으로 對美 무역에서 많은 紛爭이 예상되고 있다.

이 法案은 내년 5월 이전에 美國상품에 불공정한 행위를 하는 대표적인 국가 2개국 이상을 소위 優先국가(Priority Country)로 선정, 301조 발동을 위한 집중조사를 하고 협상에 실패하면 報復措置를 하게 되어 있어 항상 대표적인 불공정무역관행국가로 지목돼온 우리나라는 비상한 관심을 기울

여야 될 것 같다. 美國측 관측통은 韓國이 제1후보의 優先국가가 될 것이라고 밝혀왔다.

이 法案은 이밖에 ① 美國에서 무역흑자를 많이 내는 국가는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도록 압력을 넣을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② 컬러TV등 反덤핑관세를 물고 있는 국가의 상품들이 제3국을 통해 美國으로 수출되는 迂廻수출금지 조항을 두었으며 ③ 知的所有權 보호조항을 강화, 앞으로 소송사태를 예고하고 있다.

美國의 한소식통은 이 法案이 근본적으로는 美國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장치로 마련된것인 만큼 앞으로 對美

무역흑자가 많은 韓國 日本 대만등은 수입개방등 미국상품수입을 적극적으로 해야된다는 압력을 크게 받게 될것이라고 밝히고 對美무역흑자가 남듯할만한 선으로 줄어들때까지는 美國의 압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綜合貿易法은 당초의 기본안(HR3)이 지난봄 상·下양원을 통과했었으나 大統領이 공장폐쇄사전신고의무화 조항등에 반대, 비토를하고 의회가 그 비토번복투표에 실패하는등의 우여곡절을 겪어왔었다. 이번의 綜合貿易法은 大統領이 반대하는 두조항을 뺐것으로 나머지는 基本案과 똑같은 것이다.

東歐圈·中國 工所權세미나 開催 AIPPI 韓國部會에서 10月 19~20日

中國을 포함 소련·유고·헝가리등 東歐圈국가들의 工業所有權전문가 10여명이 참석하는 東歐圈·中國·工業所有權세미나가 오는 10월19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

國際工業所有權 保護協會(AIPPI) 韓國부회(회장 南啓榮)와 韓國貿易協會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이들

공산국가의 工業所有權制度 운용실태를 직접 소개, 국내기업의 對東歐圈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本會 人事

權映準(사무원·연수부근무)
1988年 9月 2日 발령) <☞>